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호주, 아시아, 새우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호주, 아시아, 새우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7.1.

호주 퀸즐랜드 내 5개
새우 양식장에서 흰 반점
바이러스 발병

2017.1.9

호주 연방,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 수입 중단 발표

핵심이슈
도출

“호주,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 수입 중단”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호주,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 수입 중단

2017년 1월 9일,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아시아 지역의 비가열 새우의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9일 이후 수입된 비가열 새우는 전수검사를 받아 재수출되거나 일체 폐기될 예정이다. 수입 중단 대상은 가열 처리되지 않은 새우 및 새우살과 마리네이드 양념으로 재운 식용 비가열 새우 및 새우살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뉴칼레도니아산 비가열 새우(이하 새우살 포함), 덩섬류의 가공 재료로 사용하는 비가열 새우, 빵가루를 입히거나 반죽을 묻혀 코팅 처리한 식용 비가열 새우는 수입 중단 면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최근 퀸즐랜드 5개 양식장에서 새우 양식에 치명적인 흰 반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 아시아산 비가열 새우 수입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수입산 비가열 새우의 위해 수준이 허용치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였으며 위해 수준이 완화되었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

한국은 2003년 이래로 국내에 흰 반점 바이러스가 발병한 사례가 전무하여 호주의 바이러스 확산에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흰 반점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 양식 새우가 집단 폐사한 사례가 있어 호주의 수출 중단 입장에 무결함을 표명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 수입 제한 조치가 완화될 때 까지 흰 반점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흰 반점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호주의 흰 반점 바이러스 확산과 한국산 비가열 새우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 연방이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비가열 새우의 수입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산 비가열 새우의 對호주 수출에 어려움이 생겼다.

비 가열 새우를 취급하는 한국 식품 업체의 경우 호주 내 흰 반점 바이러스 현황을 예의주시하여 중·장기적 수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호주 내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위험을 감안하여 신규 수출 국가를 발굴하고, 이와 동시에 국내에 흰 반점 바이러스가 발병하지 않도록 사전에 바이러스 유입을 예방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